

한영섭

韓永燮

YOUNG-SUP HAN

- 평안남도 개천 출생 1941
-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서양화 전공 1961~1965
-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 1980~1982
- 상명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역임 1985~2008
- 상명대학교 예술대학 학장 역임 2000~2002
- 현 상명대학교 예술대학 명예교수

개인전 포스코미술관, 겸재정선미술관, 조선일보미술관 등 국내 15회 | 일본 후쿠이시립미술관, 독일 라데미술관, 미국 롬바갤러리 등

단체전 <한국현대미술동향전> 국립현대미술관 1978 | <한국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 국립현대미술관 1986 | 선재미술관 개관 기념 현대미술초대전 선재미술관 1991 | <한국현대미술 격정과 도전의 세대> 토탈미술관 1993 | <한지, 조형적 해석> 워커히미술관 1997 | <한국의 추상 회화 : 1958~2008> 서울시립미술관 2008 | <어울림 展> 영은미술관 2009 | <한지+화지 한일 현대미술 展> 쉐마미술관 2011 | <하얀 울림, 한지의 정서와 현대미술 展> 뮤지엄산 2015 <거장의 예술을 찾아서 '기전본색'> 경기도미술관 2017기 등, 국내 250여회

일본, 대만, 중국, 홍콩, 인도, 미국, 캐나다, 브라질, 베네수엘라, 프랑스, 독일, 네델란드, 덴마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호주 등 해외 80여회
수상 제 10회 국전 특선(1961), 신인예술상 장려상(1963), 토탈미술상(1994), 오사카 트리엔날레 동상(1990), 오사카 트리엔날레 동상(1993),

오사카 트리엔날레 특별상(1996), 고베대지진부흥 10주년 기념 국제공모전 우수상(2005)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리움미술관, 뮤지엄산, 토탈미술관, 경기도미술관, 조선내화, 포스코미술관, 일본 고베현립미술관, 독일 라데미술관, 미국 산안토니오대학 외

한영섭은 '한지와 탁본의 화가'로 널리 알려졌는데, 사물의 표면 질감을 찍어내고 떠내는 일련의 작업 과정을 통해 지극히 단순하고 절제된 전면 회화 양식의 화면 위에 자연 속 깊이 내재된 운율을 표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그의 고집스러운 작업의 방식이다.

한영섭은 한지에 대한 실험정신이 남다르다. 두터운 요철지를 이용, 새로운 한지의 텍스처어를 살리며 제작하고 있는데, 한때는 자갈돌 위에 한지를 발라 작품을 하기도 했고, 고옥의 석가래, 아크릴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보기도 했다. 수십 년 동안의 이런 고민 통해 그는 우리 종이 지닌 회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는 세계 곳곳에서 그의 작품을 주목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했다. 한영섭은 서양의 테크닉을 배운 서양화가이지만, 이렇게 한지라는 매재와 탁본이라는 전통적 테크닉으로 표출되는 고민과 정체성은 지극히 동양적이고 한국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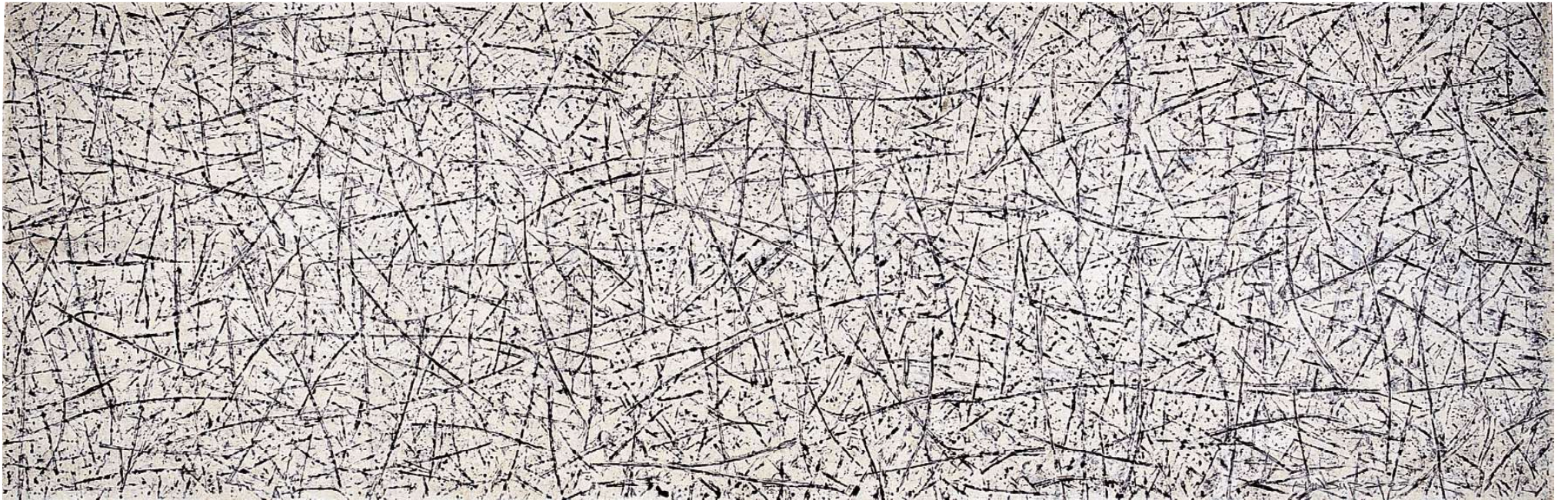
그의 작품은 거대하다. 그러나 그 거대한 시적 운율은 일상 속에서 나온다. 풀 한포기, 돌멩이 하나, 아무렇게나 밟고 다니는 흙바닥 등, 그가 그간 관찰하고 품어낸 자연은 작고 소박하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한영섭이 찾아낸 세계는 우주다. 1980년대 후반부터의 작품에서는 대체로 수많은 자연 현상의 변화를 표현하려 했는데, 그 20여년 오감에 담았던 일상 속 자연에서 비밀을 밝혀내듯 집요하게 빛과 소리를 하나하나 찾아낸다. 2000년 이후의 작업에서 마침내 그는 대지위의 바람, 소리, 그리고 빛을 그의 감성에 담아 소화하고서는 다시 토해낸다. 보이지 않던 우주가 화면 위에 펼쳐진다. 실로 작은 것에서 시작된 거대한 체험이다.

그가 발견한 것은 작품의 규모에 반영된다. 한영섭은 이렇게 말한다. "제 작품이 시야를 장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작품을 바라볼 때 그 시선이 미치는 곳까지 지배할 수 있어야 자연을 보고 느낀 충격과 감동을 조금이나마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거대한 바다나 금강산을 조그마한 화폭에 담는다면 그것은 그저 이미지일 뿐이지요. 크나큰 자연과 마주했을 때의 감동은 조금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제 작품이 큰 것은 바로 이 때문이지요."

돌과 풀로 시작한 그의 손길이 켜켜이 쌓여 마침내 거친 파도의 격랑, 또 때로는 미풍에 담긴 공기의 떨림, 혹은 따뜻한 대지의 온기가 되어 시야를 지배한다. 자연에 귀의하기를 꿈꿨던 작가가 품어낸 '그의 자연'이, 비록 한정되어있긴 하지만 사람이 시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최대의 공간 안에 잠시 머무는 것이다. (2008년 보도자료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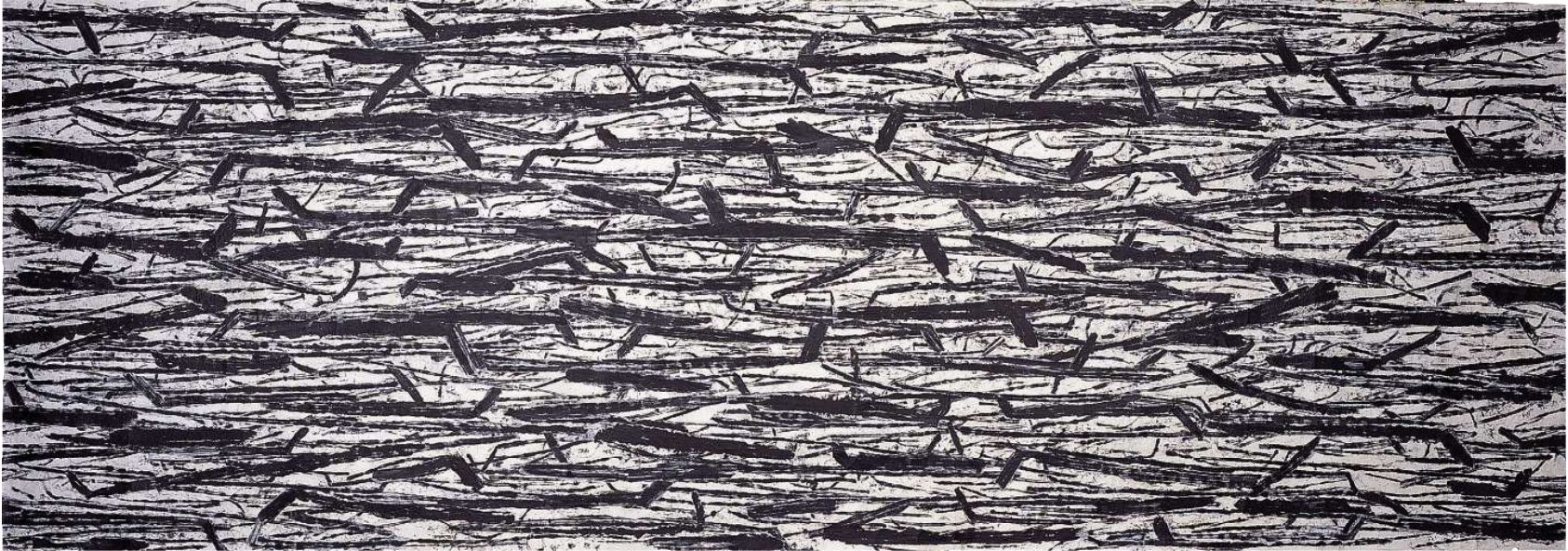
단청과 콘크리트, 163×131cm, 오일+캔버스, 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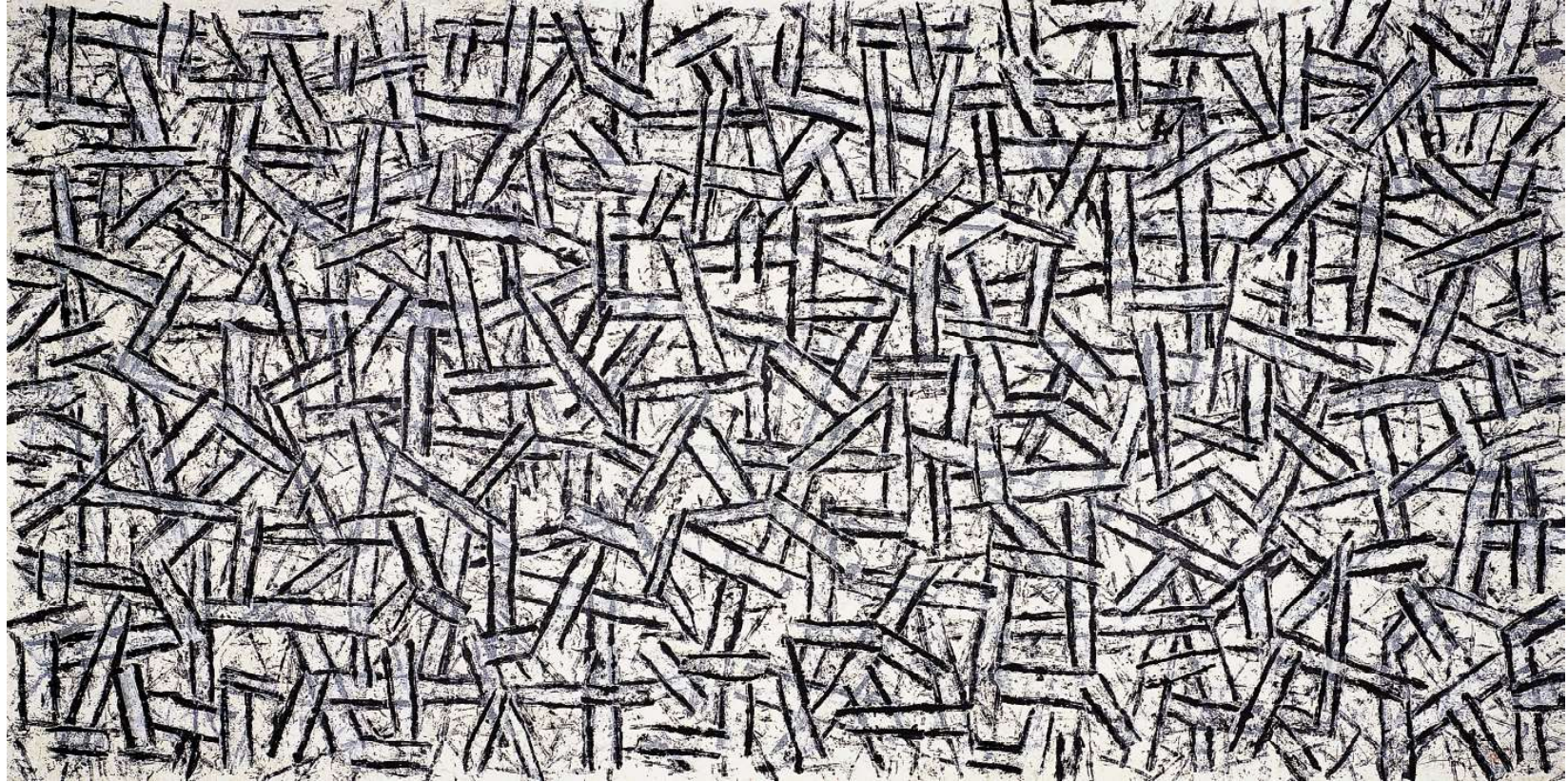
관계 No.3303, 247×764cm, 한지+탄본+콜라주, 2003



발틱해의 저녁바다, 230×535cm, 한지+탄본+콜라주, 2007



빛 바람 소리 그리고 바다, 205×540cm, 한지+황토+탄본+콜라주, 2006



대지 No.4003, 241×492cm, 한지+탄본+콜라주, 2004



관계No.9218, 263×467cm, 한지+탄본+콜라주, 1992



관계 No.9610, 210×560cm, 한지+탄본+콜라주, 1996



관계No.9807, 263×467cm, 한지+황토+탄분+콜라주,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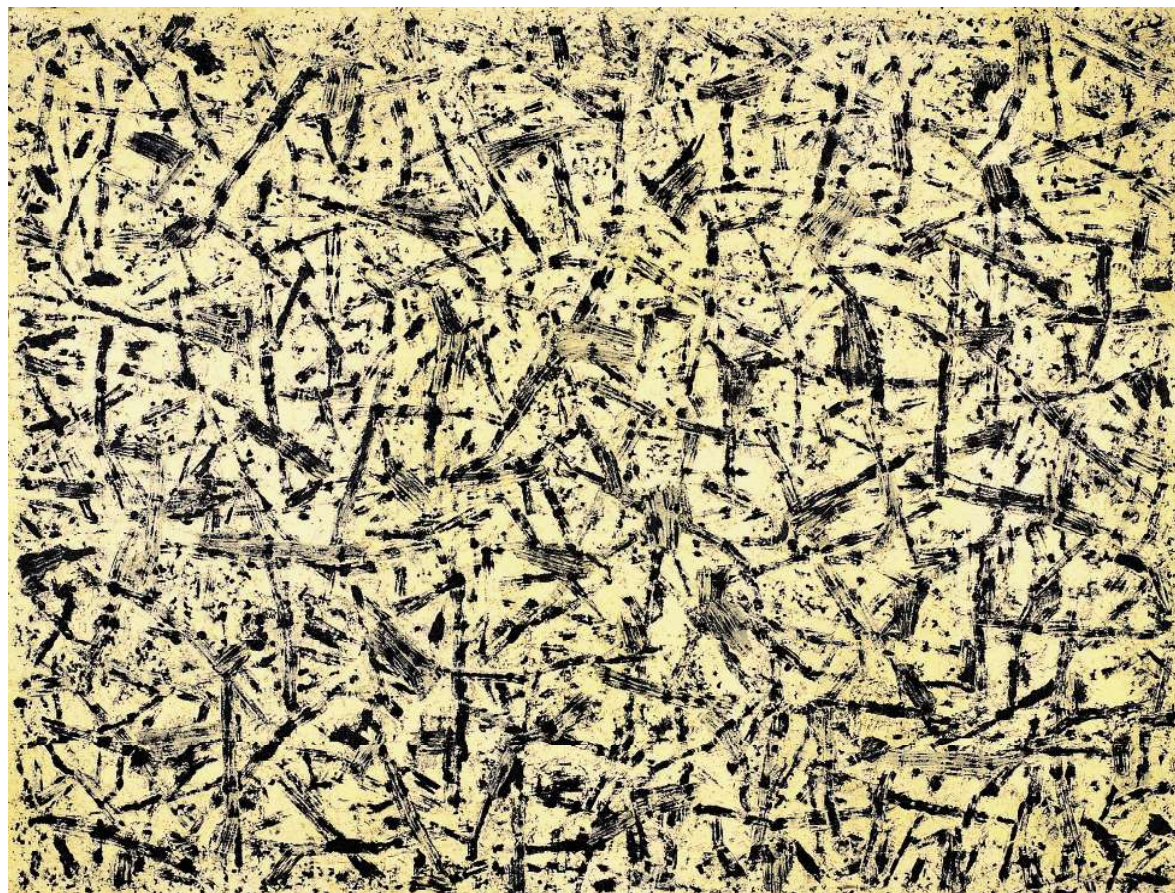
발틱의 저녁바다, 152×302cm, 한지+탄본+콜라주, 2007



관계No.9402, 263×87cm, 한지+탄본+콜라주, 1994



관계No.9303, 274×369cm, 한지+탄본+콜라주, 1993



관계No.9215, 192×254cm, 한지+탄본+콜라주,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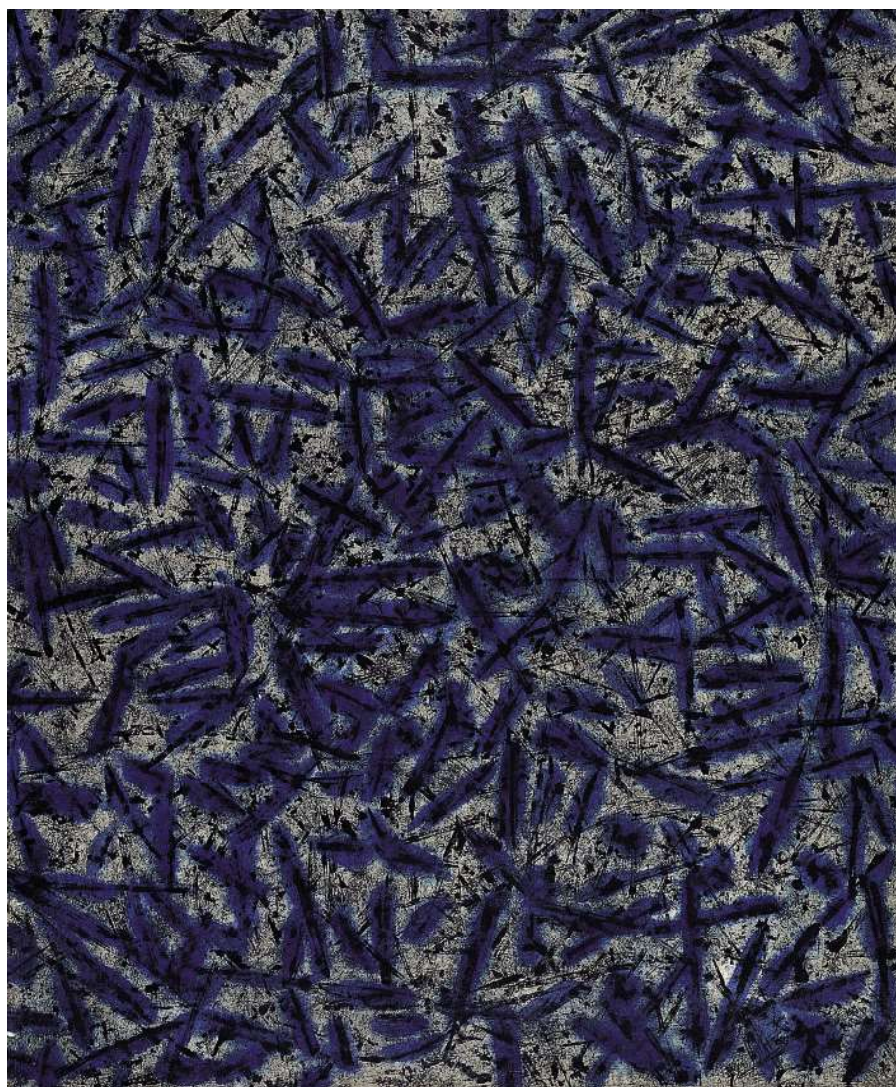
관계No.9601, 138×283cm, 한지+탄분+콜라주, 1993



관계No.9519, 188×75cm, 한지+탄본+콜라주,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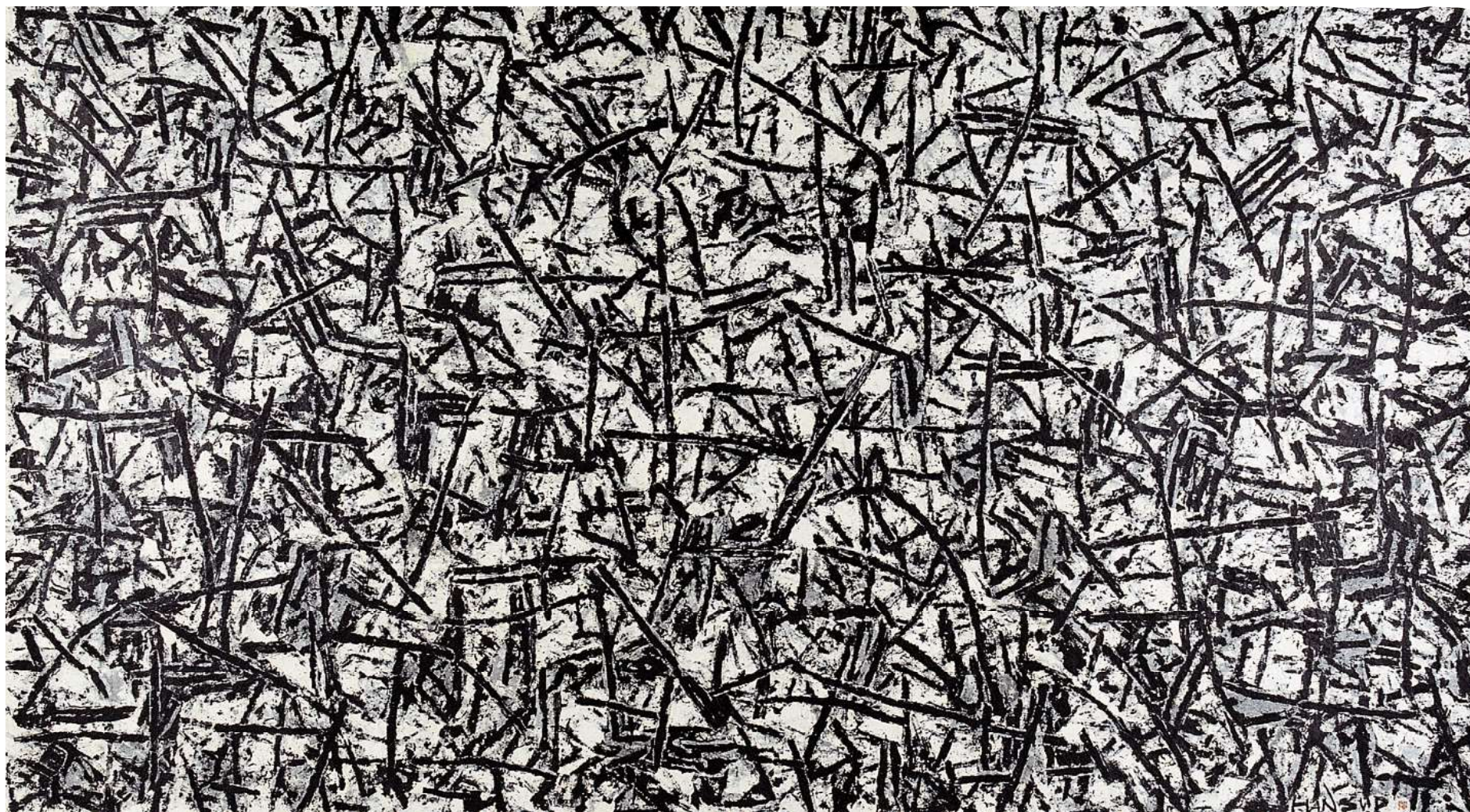
관계No.9109, 163×260cm, 한지+탄분+콜라주, 1994



관계No.9139, 163×130cm, 한지+탄분+콜라주, 1990



관계No.9150, 183×500cm, 한지+탄본+콜라주, 1991



관계No.4035, 280×500cm, 한지+탄본+콜라주, 2004